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에베소서 강해

신령한 복

(에베소서 1:3-14)

본문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선택받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놀라운 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택은 과거에 주신 복이고, 성자 하나님을 통한 구속은 현재적인 복이며,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은 영원한 것이므로 미래적인 축복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1.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

우리를 선택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외에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시기는 창세 전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선택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며 성화의 길을 걷는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택교리를 믿는 사람은 전도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2. 아들 하나님의 구속

신령한 복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과 아들 하나님의 구속사역입니다. 구속, 곧 죄 사함의 교리는 기독교 진리 핵심입니다. 구속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구속에 대한 설교가 약화되면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제일 강조해야 될 것은 구속의 진리입니다.

‘구속’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며 헬라어 아고라조(속전), 에크 아고라조(사다), 루오(자유롭게 하다)의 세 가지 용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성령 하나님의 적용

우리가 기독교의 객관적 진리를 지식으로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주관적으로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진정한 신앙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이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효과적으로 만들고,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사람으로 거듭나 교회를 이루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인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시며 영원토록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Spiritual blessing

(Ephesians 1:3-14)

Concretely teaches us that the work of salvation by the Trinitarian God is the core of Christian doctrine. We learn that God the Father chose us, God the Son redeemed us as his chosen people, and God the Holy Ghost made us to realize, understand, and believe this fact. God's word informs us of these wonderful blessings that allow us to serve God.

God's election was a blessing that was given to us in the past. Redemption is a present blessing that is given to us through God the Son. And since we are marked with the Holy Spirit with an everlasting seal, we are also given a blessing of the future. Paul says that these are our spiritual blessings.

1. God the Father's choice

The God who chose us is the Father of Jesus Christ. In this spiritual blessing, there is no other thing than God's love and righteousness. The thing we enjoy in this spiritual blessing is the effect of God's purpose and election.

The time when God chose us was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And the standard for His choice was only Jesus Christ. Therefore we have nothing to be proud of as human beings. Those who trust wholeheartedly in the doctrine of election will have full confidence in their salvation, and will receive the blessing by which they will tread the lighted path. Moreover, they will live their lives to diligently engage in the mission that God has given them.

2. God the Son's redemption

Our spiritual blessing lies in the fact that not only did God the Father choose us, but God the Son has redeemed us. Redemption is a core doctrine of Christian truth.

It means that we must be redeemed and led to salvation. If Christians do not support this grace of redemption, then the sermons about redemption will be weakened, and church itself will eventually be ruined. Therefore, the church must maintain this truth of redemption.

'Redemption' means that we must be redeemed and led to salvation. It is referred to by three Greek terms: agorajo ("to ransom"), ek agorajo ("to purchase"), and ruo ("to liberate").

3. God the Holy Spirit's application

No matter how much we understand the objective truth of Christianity, we do not yet have faith. Only when we subjectively apply the truth to ourselves do we truly have faith.

The fact that we are happy to know that the Father God chose us and that Jesus Christ redeemed us, is only achieved through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who enters our heart, makes us realize that God has called us, and that Jesus was crucified on the cross. The Holy Spirit makes us believe in, and serve Him.

The Holy Spirit makes God's calling on us effective. According to God's word, the Holy Spirit causes us to glorify Jesus Christ, makes us born again, and establishes the church. Moreover, the Holy Spirit marks us with a seal which gives us a confident faith that we are indeed God's chosen people.

My beloved Christians!

By enjoying these spiritual blessings that have been given to us by God,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come God's people which praise God forev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제10기 단기선교단 파송 '말라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8월3일(화)~12일(목) / 아프리카 말라위

제10기 단기선교단(지도: 황광 목사 단장: 이강인 집사)이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말라위로 파송된다. 제10기 단기선교단은 총 34명으로 '말라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표어를 가지고 말라위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기도 중에 모든 활동을 준비해왔다.

단기선교단은 8월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우리교회가 말라위로 파송한 김용진 선교사를 도와 기독교 교도소를 설립, 재소자들을 상대로 교도소 인근 땅을 경작하며 의료선교, 이미용 봉사, 성경학교 등의 선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10일간의 짧은 여정이지만 이 기간을 통하여 말라위에 복음이 널리 퍼지고 단기선교단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로 동참해야 하겠다.

제10기 단기선교단 단원은 다음과 같다.

- 지도: 황광 목사 · 단장: 이강인 집사
- 단원: 김은태 집사, 이자혁 권사, 박상훈 집사, 전하미 집사, 하영숙 집사, 김연화 집사, 임형빈, 박은영1, 박수진1, 염규빈, 김아리, 최인영, 박선희, 황솔애, 최근우, 임현우, 정진영, 김민선, 권신영, 최화미, 오세창, 윤수진, 박건희, 김은희1
- 의료봉사: 안인호 집사, 김영주 집사, 이지동 집사, 민효영 집사, 정현구, 정아영1, 이주영7, 이선우2

2010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교회 장학회(회장 박두호 장로는)는 지난 7월 21일(수) 오후5시 장학회를 열어 그 동안 접수된 59건의 장학금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47명의 후보를 당회에 올려 2010년 하반기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

2010년 하반기 장학생들은 장학규정 제20조에 의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교회생활에 열심인 학생들로 브리스길라 장학생(신학생) 2명, 송암장학생(찬양대 솔리스트) 12명, 일반 장학생(대학생) 18명, 디아스포라부 5명, 교역자·선교사 자녀 3명, 고등학생 4명, 호산나전문대학생 3명 등으로 총 4천7백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2010년 하반기 장학생들은 8월 7일(토) 오후 5시 602호에서 열리는 오리엔테이션과 8일 주일찬양예배 시간에 열리는 장학금 수여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앞으로 더욱 많은 학생들이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 타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충성하는 바른 일꾼으로 성장하여 나가길 기도한다. 2010년 하반기 장학생은 다음과 같다.

1. 브리스길라 장학생-2명 : 노재균, 최요섭
2. 송암 장학생-12명 : 강윤희, 노미소, 박승기, 박주리, 오유미, 이규영, 이민주, 이실비아, 이정명, 최영은, 최예은, 한혜빈
3. 일반장학생
<대학생>-18명
고요한, 권소현, 김재은, 김진우, 김한별, 박고은, 박찬웅, 오경미, 유은수, 이누리, 이민정, 이윤지, 임혜준, 진영재, 채호승, 최선애, 한민아, 홍하림
<디아스포라부>-5명 : 김은옥, 박예량, 신호남, 조범준, 최영일
<교역자·선교사 자녀>-3명 : 김하영, 이평화, 이해나
<고등학생>-4명 : 김수훈, 박익현, 이유빈, 하은상
<호산나전문대학>-3명
· 이사장 장학금 : 이창훈 · 학장 장학금 : 이혜미
· 부학장 장학금 : 김미선

『서울교회 20년사』 부록 공개 교정

서울교회 20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하인선 장로는)는 올 연말 발간예정인 『서울교회 20년사』부록 부분 1차 초고집필이 끝남에 따라 전 교인을 대상으로 직접 교정작업에 참여케 하는 '부록 공개 교정' 행사를 연다.

20년사의 권말 부록은 모두 40개 챕터(chapter, 아래 목차 참조)로 구성돼 있고, 각 챕터는 대부분 '역대 장로'나, '역대 권사' 등 주로 관련 인명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성도 여러분은 안내 데스크에 마련된 부록 초고 원성본에 자신의 성명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성도의 성명이나 직함, 섬김연도 등이 제대로 표기가 됐는지 확인하고, 교정 요청사항이 있으면 교정등록부에 교정주문을 해주기 바란다.

편찬위는 각종 역사 사료를 대조하여 오기가 확인되거나 교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부록 공개 교정' 행사는 오늘부터 1달간 진행되며, 안내 데스크는 8층 식당입구에 설치돼 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

<부록 40개 챕터 목차>

1. 역대 교역자
2. 역대 장로
3. 역대 위원회별 위원장
4. 역대 당회소속기관별 부장
5. 역대 권사
6. 서울교회 제지 (2010년 현재)
7. 역대 남아 선교회 정부회장
8. 역대 교구장 및 간사
9. 파송 권역별 역대 선교사
10. 역대 70인 전도대원
11. 역대 전도학교 수료자
12. 역대 전도상 수상자
13. 역대 찬양대 부장/차장/지휘/오르간/피아노
14. 역대 안내위원
15. 역대 헌금위원
16. 역대 계수위원
17. 역대 교회학교 지도/부장/차장/정부회장
18. 역대 설교제목
19. 역대 킷치신학세미나
20. 역대 목회자신학세미나
21. 역대 출해작전
22. 역대 사명자대회
23. 역대 단기선교단 명단
24. 역대 농어촌 100교회 운동 지원교회 명단
25. 역대 순결서약자
26. 역대 열린프로그램 수료자
27. 서울 압송 필사성경 필사참여자
28. 역대 성경통독필사 수상자
29. 역대 주간성경공부 수료자
30. 역대 교회학교수련회
31. 역대 청지기수련회
32. 역대 장학생
33. 역대 특별찬양자
34. 역대 화요정오음악회
35. 새예배당 건축현금자
36. 아가페타운 건축현금자
37. 역대 수세자
38. 역대 학습자
39. 역대 유아세례자
40. 연표

오늘부터 '만원의 정성으로 사랑의 온도계를 뜨겁게' 모금행사 시작

1, 2, 3부 각 예배 후 2층 본당입구와 사무국 맞은편 모금함에

장애우와 노인복지를 위한 아가페타운 건립을 돕기 2010 사랑의 바자 준비위원회(부장 임상현장로)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1% 나눔과 10% 절제약정과 함께 오늘부터 세 번째 캠페인으로 '사랑의 온도계' 행사를 시작한다. '사랑의 온도계'는 모금에 동참하는 성도 한 사람 당 만원(10,000원)을 기부하면 사랑의 온도계가 1도씩 뜨거워지는 행사로서, 뜨겁게 모아진 기금은 장애우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선물함은 물론 소외된 노인들의 따뜻한 보금자리 건축을 위한 종자돈(seed money)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모금함은 2층 본당 입구와 1층 사무국 맞은편에 설치되고 8월 한달 동안 매주 1,2,3부 예배 후 모금을 진행하게 되며 모금에 참여하는 성도는 모금함 옆에 비치된 참여자명부에 교구와 이름을 기재하여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 한편 '사랑의 온도계' 모금행사는 오늘 아침 당회원 기도회 직후 위임목사의 모금개시기도로 출발하니 한달 동안 성도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동참을 바란다.

아울러 오는 9월9일-10일 양일간 개최되는 사랑의 바자

행사에 판매물품을 제공할 성도들은 다음주(8월8일)까지 각 해당교구 간사들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준비일정 상 이후 신청분은 접수가 어렵다.)

한편 지난 주간 접수된 나눔과 절제약정에 동참한 성도명단은 다음과 같다.

- *1% 나눔운동 참여약정자(괄호안은 운영기업명칭)
김준목(메타디움) 김형상(세무법인 조이) 나미용 윤운 이미연 이인보 임상현(법무법인 보람) 임종식-신선주(유모통상) 전용식-조명옥 하극수-조영자(역창공업) 한승집-최미아(합흥공보병면)
- *10% 절제운동 참여약정자(괄호안은 가족 또는 후원부모 이름)
김경희 김명은(김금준) 김명석(김금준) 김장섭(최춘숙) 김준목(나현주) 나미용 서희숙 소정주(부희자, 소윤경, 배현승, 배현주) 송행희 윤운 이미연 이민화 전용식(조명옥) 전은재(전봉길,임선영) 정병무 최광성(이정연) 최금봉 하극수(조영자) 한상준 황선옥1

앞으로도 나눔운동과 절제운동에 동참을 원하시는 성도는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참여약정서를 기재하여 1층 사무국 또는 헌금시간에 제출하기 바란다.

목사이중윤 · 박사이중윤 - 목회자의 길 ②

네가 가서 저 도성과 이 백성을 구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후 이중윤을 흔들여 깨우시기 시작하신다. 그는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다. 저 학생이 나보다 무엇이 나은지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이었다. 이중윤은 나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 그러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그의 두 분 누님들은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봉사도 했지만 소위 양반집 자식이 교회를 간다는 것은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해 크리스마스 때 성환장로교회는 예배당이 좁아 극장을 빌려 성탄절 행사를 했다. 동리극장이라 쉽게 들어가 보았다. 모세 연극을 하는데 이중윤의 라이벌 되는 친구가 모세 역을 맡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만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훌쩍이면서 한 모퉁이에서 실컷 울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어 그는 그의 결심의 일단을 노트에 적는다. "나도 교

회에 다닐 것이 다." 1951년 1월 첫째주일은 이중윤의 새 인생 출발일이었다. 주일에 교회에 혼자 찾아갔으나 아무도 그를 인도하는 이가 없어 교회에 새로 사다 놓은 종을 발

길로 걸어왔더니 덩- 하며 울리는 소리가 나자 사찰이 뛰어나와 "이놈! 예배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왜 장난을 하느냐"면서 등을 떠밀어 교회당으로 들어갔다.

그 날 선생님(목사님 따님)은 에스더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희들도 나라를 구한 에스더처럼 살라" 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중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아버지가 남겨 놓은 유산을 친척들이 하나씩 나누어가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버지 없는 서러움을 몸

으로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어린 자녀들의 두 주먹을 붙곤 쥐게 했다.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성경암송 대회에서 상을 타고, 고등학교 졸업 전 성경 10회 통독을 목표로 성경읽기와 성경통신강좌를 신규약 세 번 수료를 하겠다는 결심은 이루어졌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의 짝이 자살을 하여 화장터에서 재를 함에 담아 들고 담임선생님과 함께 독섬에 가서 작은 조각배를 빌려 타고 한강에 재를 뿌릴 때 그의 인생은 또 한 번 변화의 계기를 맞는다. 그날 한강에서 돌아온 이중윤은 성경책 한권만 들고 삼각산에 가서 글자가 보일 때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밤엔 계속 기도를 통해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찾았다. 산에서 내려다보이는 서울 장안, 휘황찬란한 네온 불빛으로 휩싸인 그 곳이 이중윤의 눈에는 소동고모라로 보였다. 그는 "네가 가서 저 도성과 이 백성을 구하라"는 강한 음성을 기도 일주일 만에 영으로 듣게 된다. 후일 이중윤은 그것을 소명이라고 확인하였다. 그때 그는 자기 노트 표지마다 목사 이중윤이라고 쓴다. 그 결심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

만민에게 전도-2010단기선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떠나겠습니다

이강인 집사 (말라위 단기선교 단장)

막연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온 교회의 관심과 후원과 기도를 힘입으며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고 마침내는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꼬박 하루가 걸리는 길고 험한 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곳에 가야하는 이유는 그 곳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20여년 전, 선교사들이 어두운 조선 땅 구석 구석에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 무지한 백성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질병을 치료하며 예수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세상 사람들은 폐허가 된 한국을 향하여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꽃이 필 수 있겠느냐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빛진 자들입니다.

8월 9일 마칸디 초등학교가 개교를 하는데 오전 행사가 끝나면 오후에 약 400여명의 어린이들이 모아 마을운동회를 하고, 저녁에는 온 동네 주민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교실 미화 작업과 성경학교를 열어 찬양과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 사역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 미용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대부분 삭발을 하고 싶어 한답니다. 미용 대상은 교도소 수감자를 포함해 2천명이 넘지만 기간 내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지에는 지금 진료소가 한 곳 있는데 부근 동리에서 매일 너무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 미처 의료진의 손이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의료선교팀은 4명이며 가지고 가는

약만도 2천여명 분의 양이 되므로 현지 진료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밖에 교도소 수감자들과 함께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편지쓰기 등 선교사님의 인도에 따라 교도소 사역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말라위 선교팀은 의료팀을 포함하여 모두 34명입니다. 우리는 다만 서울 교회를 대표해서 갈 뿐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선교사이십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가는 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말라리아, 황열, 파상풍, 장티푸스, A형 간염 등의 풍토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비록 열흘간이지만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선교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떠나겠습니다.

< 단기선교팀 기도제목 >

1. 아프리카 말라위의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2. 단기선교팀원들에게 성령충만함과 선교의 비전,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3. 선교팀원들이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단기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4. 준비하는 프로그램들이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5. 필요한 선교물품과 재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준비하게 하소서.
6. 아프리카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시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7. 의료선교팀에게 병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어 병자의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8. 오고 가는 길과 모든 여정에 주님 동행하시어 사건, 사고없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9.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단기선교가 되게 하소서.

사랑나눔A+ 운동

나눔

강재원 (초등부)



하나님께서 사랑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함께 지으시며 서로 나누고 어우러져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세상도 어우러져 살기에 나누며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다. 세상엔 많은 도움이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기에 우리 모두는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채우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생인 나로서는 기부하고 나누는 생활에 동참하기 위해 방학동안 에너지 절약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한다. 우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내 방 불 잘 끄기, 에어컨 보다는 선풍기 이용하기, 학습문구류 잘 정돈하여 재사용하기, 물 아껴 쓰기 등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쉽게 실행할 수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전 에너지 절약이라는 작은 실천으로 나눔을 할 수 있다는 큰 의미를 두고 실천하려 노력할 것이다.

나중에 커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자하는 꿈을 품고 먼저 작은 실천부터 앞장서서 나누는 삶에 적극 동참하며 살 것이다. 이런 좋은 행사에 다른 친구들도 함께 많이 참여하였으면 참 좋겠다.

여름수련회 초대이글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이동권 집사
(디아스포라부 부장)

모든 나라에는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을 지키는 정예간부들을 훈련하고 육성시켜 파견하는 목적이 분명한 학교입니다. 서울교회 디아스포라부는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대비하여 그 곳에 파송할 정예간부를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리고 약하지만 언젠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처럼, 주체사상으로 오염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실종되고 인권이 여지없이 유린된 죽음의 아글 골짜기 같은 저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 들고 찾아갈 날이 곧 오리라는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마다 때마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 땅을 떠나온 지체들이기에 지금 서울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기적처럼 감



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름철을 맞아 8월 6일(금)부터 이틀간 '예배의 기쁨'을 주제로 이종윤 목사님과 박광일 목사님을 모시고 아가페타운에서 여름수련회를 가집니다. 교회 내 지체들 뿐 만 아니라 흠어져 있는 밖의 생도들도 동참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키며, 확장시키는 고급 장교가 되기 전에 '진정한 예배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또 한 번 이 여름캠프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테너 류충기 집사(임마누엘찬양대 지휘)의 찬양으로 드린다. 연세대 음대와 이태리 트렌토 극립음악원, 로마 예술 아카데미에서 공부하였으며, 현재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등 활발한 연주 활동과 연세대, 단국대, 충남대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양경실성도(임마누엘 찬양대 피아니스트)의 반주로 '살아계신 주(B.Gaither)' 등 세곡을 드리며 '내 주의 은혜 강가로(서은정 편곡)'는 임마누엘찬양대원(박세아, 이민주, 박주리, 김정은)과 함께 찬양드린다.

폐 휴대폰 모으기 운동

우리교회는 대치1동사무소와 함께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원재활용 운동인 '폐 휴대폰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자원재활용을 위해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2일(월) 1교단 다체제 한국장로교회를 각 총회에 현의하기 위한 신학위원회를 소집한다. 5일(목)~6일(금) 아시아 로잔7차대회 프로그램 위원회를 소집한다.

■ 이갑진 장로는 7월29일~8월 3일 선교차 캄보디아로 출국
■ 득남: 김민철 집사 배우리 집사(5교구)

■ 주간식당봉사: 마리아 전도회(8.1) 에스더 전도회(8.8)

■ 금주의 식사: 서문석 장로 한춘홍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여름수련회 초대이글

결혼, 가정 그리고 기쁨



홍일성 집사
(신혼가정부 부장)

신혼가정부에서 2010년8월13일(금)~8월14일(토) 아가페타운에서 여름수련회를 가집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알차게 보내기 위해 한상은 목사님과 임원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주님같이 섬기며 주는 사랑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출발한 결혼이 지금은 어떤지? 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준비된 부모인지? 신혼에 묻혀 부모님 사랑을 잠시 잊지는 않았는지? 일터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 나아가 주님과 그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과 기도 속에 회개와 지혜를 얻고 자주 만나지 못한 친구부부도 초대하여 친교의 시간을 통해 부부가 하



나 되고 회원 간의 즐거운 공동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혼가정여러분!

바쁜 일상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아가페타운에서 '결혼, 가정 그리고 기쁨'이란 주제 속에 말씀과 기도, 찬양과 친교의 시간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흠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여름수련회를 위하여
4. 말라위 단기선교팀의 안전과 사역 위하여
5. 1교단 다체제 한국장로교회 거둬나기 위하여

교회외시는 길

